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2

1

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고 영혼을 수련해야 한다네.
- ② 명예나 부와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네.
- ③ 감각적 경험에 근거한 도덕 원리를 탐구해야 한다네.
- ④ 현실적 유용성에 따라 옳고 그름을 인식해야 한다네.
- 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윤리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네.

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도덕은 정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성에서는 유래될 수 없다. 이성만으로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은 판단되기보다 느껴지는 것이다.
 을: 자연의 필연 법칙을 이성에 의해 인식함으로써 영혼의 만족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것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신 또는 자연의 절대적 본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보기 >

ㄱ. 갑은 인간이 가진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본다.
 ㄴ. 을은 인간이 이성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세계의 모든 일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ㄹ. 갑은 을과 달리 이성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라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다음 한국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하늘은 인간에게 선악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선택의 권능 [自主之權]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면 악을 행할 수 있으니,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 ① 인간의 본성에 인의예지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가?
- ②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도덕적 삶이 가능한가?
- ③ 인간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사단(四端)을 형성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가지고 있는가?
- ⑤ 인간은 자연의 도(道)에 따라 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4.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도덕 발달이 책임과 관계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야 하며, 도덕 판단에서도 추상적인 사고보다 상황에 대한 고려, 공감, 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도덕 판단을 결정하는 것은 추론 능력이며, 도덕 발달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른 사람은 보편적 정의 원리를 최고의 행위 원리로 채택한다.”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학자의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판단에서 보편적 원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개인의 도덕성과 추론 능력이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도덕 발달 단계에서 정의와 공정성이 중요함을 간과하고 있다.
- ④ 추상적 도덕 원리가 아닌 삶의 구체적 맥락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5.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일심(一心)이란 무엇인가? 깨끗함과 더러움의 모든 법은 그 성품이 둘이 아니고, 참됨과 거짓됨의 두 문은 다름이 없으므로 하나라 하는 것이다.
 을: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두 문을 벗어나지 않는다. 성인(聖人)은 깨닫고 난 뒤에 닦았으며, 신통한 지혜도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거쳐 나타나는 것이다.

- ① 갑은 세속과 진리의 세계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중과 간의 논쟁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단박에 진리를 깨달은 뒤에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경전과 교리 공부만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6. (가), (나) 사회사상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개인은 선(善)에 대한 관념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지녔으며, 어느 누구도 특정한 좋은 삶에 대해 강요받아서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들이 자신의 선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나) 개인의 선은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공유하는 문화적 관습에 의해 결정되며, 좋은 삶의 방향은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근거해 설정된다. 따라서 국가는 좋은 삶과 공동선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 보기 >
 ㄱ. (가): 개인은 각자의 좋은 삶을 선택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ㄴ. (나):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관계를 토대로 형성된다.
 ㄷ. (나): 국가는 공동선이 아닌 개인의 권리만을 중시해야 한다.
 ㄹ. (가), (나): 국가가 개인의 좋은 삶의 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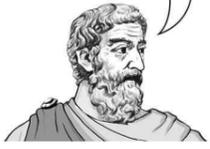
갑: 사단은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이를 따르는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기를 탄 것이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지만 어느 쪽이 주재하느냐에 따라 사단과 칠정으로 나뉜다.
 을: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 즉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한쪽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칠정뿐 아니라 사단 또한 기가 발함에 이가 기를 탄 것이다.

- ① 갑은 사단과 칠정의 발하는 연원이 같다고 본다.
 ② 갑은 칠정 가운데 선한 감정만을 사단이라고 본다.
 ③ 을은 사단은 본성이며 칠정은 감정이라고 본다.
 ④ 을은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⑤ 갑, 을은 이와 기는 모두 발하므로 서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8.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음의 평온은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체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ataraxia]라고 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이성에 따라 자연적 질서에 순응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apatheia]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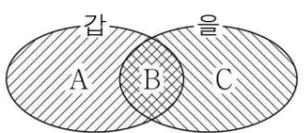
갑



을

- ① 자족적이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② 개인의 삶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③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욕구를 제거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쾌락이 행위의 목적이자 가치 판단의 기준임을 간과하고 있다.

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격물치지(格物致知)란 사물을 탐구하여 앎을 확충하는 것이다. 천하의 사물에는 모두 이치[理]가 존재하므로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窮究)하게 되면 지극한 앎에 도달하게 된다. 을: 격물치지란 내 마음의 양지(良知)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다. 내 마음의 양지가 바로 하늘의 이치이므로 각각의 사물에 양지를 실현하면 사물들이 모두 그 이치를 얻게 된다.
(나)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left: 20px;">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보기 >
 ㄱ. A: 선행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여 양지를 획득해야 한다.
 ㄴ. B: 마음 밖에 존재하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ㄷ. B: 천리를 보존하고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ㄹ. C: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쾌락과 고통은 입법자가 일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하며 그 가치의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을: 쾌락과 고통에서 중용은 절제이고, 지나침은 방종이다. 덕은 쾌락이나 고통과 관련하여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하게 해주며, 악덕은 그 반대이다.

< 보기 >
 ㄱ. 갑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ㄴ. 갑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의지의 나약함이 악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인간이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그림은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단을 확충하면 사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서로 다투고 빼앗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의와 법도에 따른 교화가 있는 뒤에야 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규범에 맞게 됩니다.



갑



을

- ① 갑은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인(仁)의 단서라고 본다.
- ② 갑은 본성을 변화시켜 무위(無爲)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이기적인 욕구를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라고 본다.
- ④ 을은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을 인위적 노력[偽]의 결과로 본다.
- ⑤ 갑, 을은 누구나 수양을 통해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12.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색(色)이 무상(無常)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고, 싫어하여 떠날 마음이 생기면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색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受)·상(想)·행(行)·식(識) 또한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존재의 무상함을 깨달아 집착을 버려야 한다.		✓	✓		✓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무명(無明)에서 벗어나야 한다.		✓			✓	✓
연기(緣起)의 자각을 통해 고정된 자아를 인식해야 한다.			✓	✓		✓
팔정도(八正道)를 수행하여 불성(佛性)을 형성해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신은 최고선이며, 우주 만물은 신으로부터 유래한다. 신은 실존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우리는 신을 사랑함으로써 천상의 국가에 속하게 된다.

을: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며, 인간의 본성 또한 신의 법칙을 반영한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

< 보기 >

- ㄱ. 갑은 자연 그 자체인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자연법이 신의 의지인 영원법에 근거한다고 본다.
- ㄷ. 을은 갑과 달리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자유 의지가 없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서로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재판관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 사회에 있으며, 공통의 재판관 없이 각자가 자신을 위한 재판관이자 집행자인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 있다.
- 명시적 동의에 의해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로 한 사람은 그 정부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사람은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이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

- ①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가 필요하다.
- ②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는 자연적 산물이다.
- ③ 자연 상태의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하여 입법권을 수립한다.
- ④ 시민 사회의 구성원은 어떤 경우에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명시적 동의에 의해서만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의무가 발생한다.

15.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명예의 주인이 되지 말 것이며, 모략의 창고가 되지 말라. 일을 맡고 나서지 말 것이며, 지식으로 사람을 주재하려고 하지 말라. 하늘로부터 받은 몫을 다하되 자기 위주로 보거나 얻으려고 하지 말 것이며 또한 비위야 한다. 지인(至人)은 마음을 쓰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떠나는 것은 떠나는 대로 비추어 주기만 하고 마음에 남겨두지 않는다.

< 보기 >

- ㄱ.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가?
- ㄴ. 예법을 익혀 절대 자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가?
- ㄷ.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ㄹ.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만물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6.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이상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생산자가 힘을 가졌다고 군인이 되려 하거나, 자격도 없는 군인이 통치자가 되려는 것은 나라의 가장 큰 해악이다. 그러나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지혜와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
 을: 노동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수록 자신은 값싼 상품이 되고, 부(富)를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다. 그러나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계급이 소멸되면 모든 소외가 사라지고 인간의 본질이 회복된다.

- ① 갑: 절제의 덕을 가지지 않아도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사회이다.
- ② 갑: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이다.
- ③ 을: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이다.
- ④ 을: 분업화된 생산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다.
- ⑤ 갑, 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이다.

17. 다음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仁)한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 주고, 자기가 두루 통하고 싶으면 남도 두루 통하게 해 준다. 내 처지로부터 남의 처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 인을 행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천하의 모든 이들도 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보기 >

- ㄱ. 사욕을 이겨내고 예를 회복해야 한다.
- ㄴ. 군주는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 ㄷ. 친소(親疏)의 구별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ㄹ. 어진 마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야[恕]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다음 서양 사상가의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오직 의지의 원인이 되는 법칙 자체만이 존경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명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는 법칙이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버리더라도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이다.

- ① 인간은 감각적 경향성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다.
- ②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의 목적이다.
- ③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무조건적 명령이다.
- ④ 행위의 결과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 ⑤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도출해야 한다.

19.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은 신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로서 자신을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이며,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신과 대면하여 참된 자신이 될 수 있다.</p> <p>을: 인간의 본질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상할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구상하는 그 무엇이며,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p>
(나)	<p>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탐구한다.</p>

< 보기 >

- ㄱ. A: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과 선택을 중시하는가?
- ㄴ. B: 불안과 절망은 합리적 이성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가?
- ㄷ. B: 신에게 귀의하기로 결단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가?
- ㄹ. C: 인간의 본질이 개개인의 실존에 앞서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는 성장, 개선,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움직이는 방향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 좋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며, 좋은 사람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사람입니다.

- ① 도덕과 윤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 ② 결과의 유용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③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불변의 도덕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 ④ 도덕의 목적은 고정된 선의 성취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이다.
- ⑤ 지식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